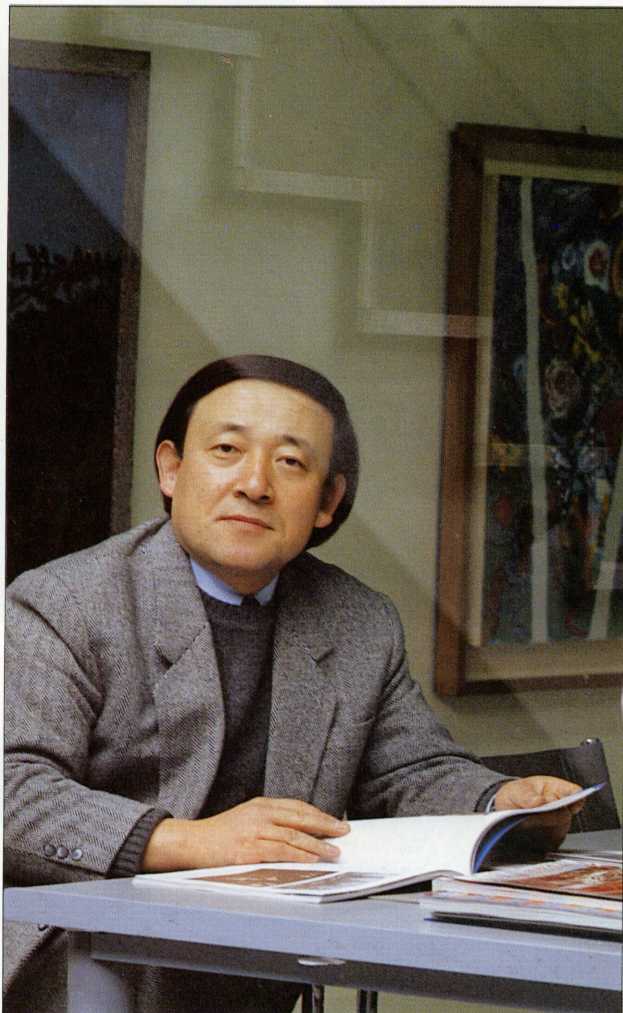


특집/오늘의 문제작가

목공예가 최병훈

오브제와 생활가구의 접목 가능성



사진/신복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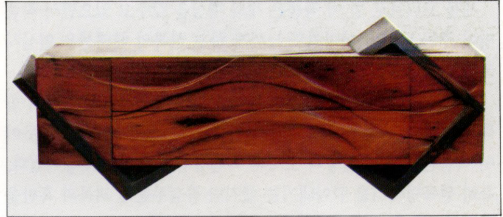
목공예가 최병훈은 '52년 강원도에서 태어나 홍익대 응용미술과를 졸업, 동 산미대학원에서 가구디자인을 전공하였다. '77~83년까지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전시디자이너로 근무했으며 이때 여러 나라를 다니며 겪은 다양한 문화의 경험이 공예가인 그에게 '우리것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줬다고 한다. '78년 '현대공예의 조형성 추구'라는 이념 아래 현대공예창작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87년 공예대전에서의 대상 수상은 그의 작품방향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후 소품가구 제작에 관심을 기울여 '89년 한국공예가협회전에서 수납기능과 함께 공간 장식의 기능을 가진 가구로 목철부문의 한국공예가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공예가협회, 한국미술협회, 현대공예창작회, 홍림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홍익대 목공예과에서 가구관련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2

1. '변위(변위)82' 느티나무 110×33×32cm 1982.
2. '채집된 곤충8402' 화류 89×35×28 1984.
3. '상함-80' 화류+흑단 160×29×51cm 1979.
4. '태초의 바람8803' 흑단+화류 22×65×140cm 1988.



3



4

70

~80년대를 한국공예에 있어 개념의 혼란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형과 실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목적의식도 뚜렷하지 못한 작품들이 무책임하게 발표되었고 그러한 경향은 공예의 발전방향을 흐트러뜨린다는 염려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특히 목공예분야의 경우 과거의 국전출품작 중 가구작품을 작가가 순수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 일이 있어 대부분의 목공예 출품자들이 손수 깎아 완성시킬 수 있는 기(器)의 형태를 가진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원목 덩어리를 깎아 겨우 용(用)의 구색을 갖춘 목공예품들이 공모전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을 지나으면서 조형적인 작품과 실용적인 작품이 선명하게 분리되어 작가마다의 특이한 개성을 나타내며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목공예의 경우 재료 부족의 절실함이 소재 선택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통나무보다는 판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접목이나 짜임을 이용한 새로운 기법의 개발을 통해 소품 가구나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목재의 결합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소재와의 결합을 활용하여 생활용품으로서의 기능성 추구를 시도해 보기도 하였다.

목공예가 최병훈의 작품이 특히 그런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79년 29회 국전에 상식적인 가구의 개념을 조금 탈피한 장식을 강조한 가구를 출품, 기대를 걸었으나 특선에 그쳤고 결국 그도 원목덩어리를 사용한 작품들을 몇점 발표하게 되었다.

이렇듯 대다수의 작가들과 같은 흐름을 타던 그가 '83년 '채집된 곤충' 시리즈의 시초로 조형성 위주의 오브제 작품과 오브제 성격을 가진 가구를 발표하여 가구디자인으로의 변신을 타진해 보기 시작했다.

작가는 '채집된 곤충' 시리즈를 "공예용도의 새로운 해석과 자연에서의 미적 경험으로 얻어지는 새로운 형상성의 추구"라고 설명한다. 삼각형의 서랍을 만드는가 하면 공중에 띄우는 소품가구를 만들기도 하였고, 은을 부재료로 사용하여 향수용기를 만드는 등 목공예품의 사용범위를 넓히고 동시에 재료의 극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의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가 '채집된 곤충' 시리즈에 주로 사용한 재료는 흑단과 장미목 그리고 부재료로는 은을 들 수 있다. 흑단은 조형성이 강한 작

품을 하려고 할 때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 표현해 줄 수 있는 최상의 재료 중 하나인데 흑단과 은, 장미목과 은의 접합은 보는 이에 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소재의 결합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료의 적절한 사용과 형태와 개념의 새로운 시도가 그가 추구하는 작업의 출발인지도 모른다.

‘채집된 곤충’ 시리즈 이후 ’87년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초에 있었음직한 원시적인 형태를 찾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된 ‘태초의 바람’으로 공예대전에 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새를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은 새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면서 작품명이 주는 바람의 이미지도 느끼게 하고 한복의 배대선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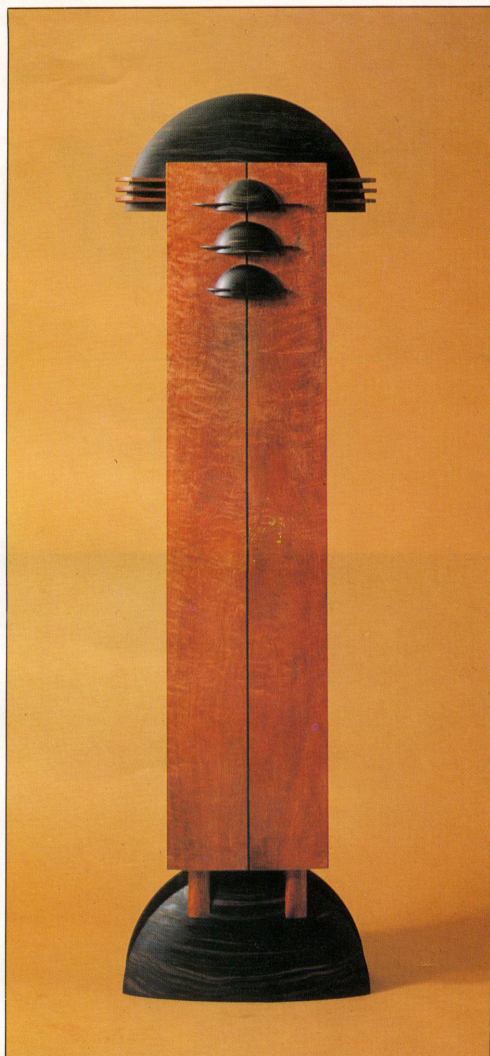
“새를 주제로 나무의 목리를 최대한 살리고 형상에서도 새의 함축된 조형성은 높은 사고력의 결집”이라는 평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재료의 활용과 소재의 적합성이 어우러진 작품이었다. 특히 원목덩어리를 깎아내기는 했지만 중심부분에 괴목과 흑단을 접목시켜 효율적인 재료활용을 꾀한 것이었다.

대상 수상을 계기로 핀란드의 헬싱키 산업미술대학에서 연구교수의 자격으로 가구연수를 받을 기회를 가졌다. 북국 여러 나라들이 수(樹)자원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원목 그대로를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고 플라이우드나 벤트우드 등으로 목재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되짚어보게 되었다. 결국 공예대전의 수상작인 ‘태초의 바람’이 그에게는 원목덩어리의 마지막 작업이 되었고 앞으로는 덩어리 작업은 지양할 것이라고 한다.

’88년 발표된 ‘태초의 바람8803’을 시작으로 높이 1m가 채 되지 않는 소품가구들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89년 현대미술초대전에 출품한 ‘태초의 바람8906’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아트 퍼니처(Art Furniture)작업에 몰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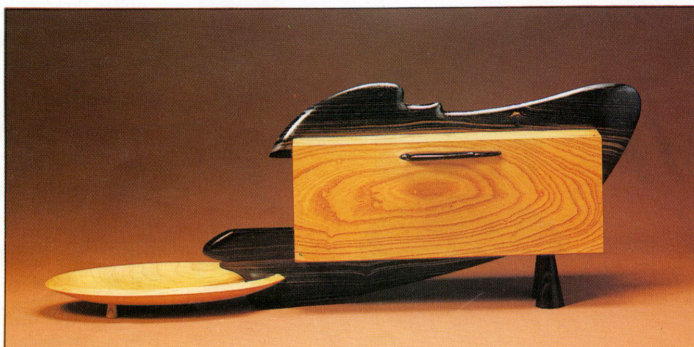
그가 주장하고 있는 가구란 수납의 기능만을 갖춘 단순한 캐비닛 개념이 아닌 감정을 전달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내에서 커다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가구는 실제로 활용되는 시간 외에도 사용자의 미적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그가 말하는 아트 퍼니처의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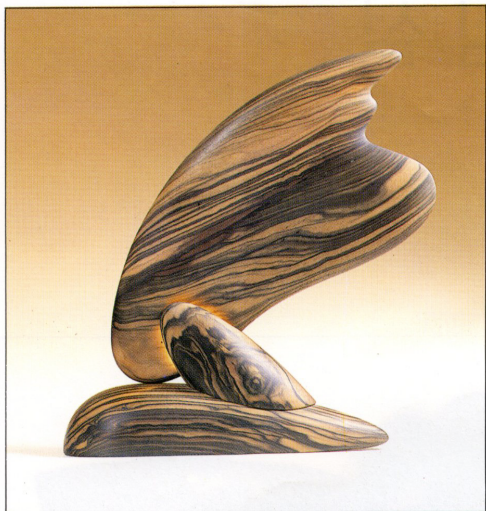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그가 요즈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의 주제인 ‘태초의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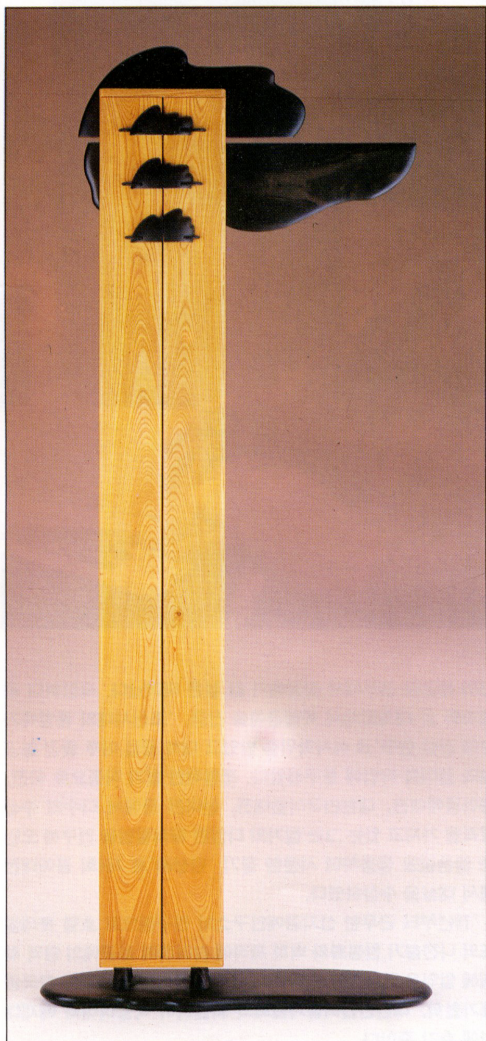




7



8



9

5. '태초의 바람8906' 흑단+화류 49×28×170cm 1989.
 6. '태초의 바람8905' 과목+흑단 78×15×28cm 1989.
 7. '태초의 바람8902' 흑단 40×120×420cm 1988.
 8. '태초의 바람8909' 느티나무+흑단 82×30×127cm 1989.
 9. '태초의 바람8907' 느티나무+흑단 54.5×24.5×155cm 1989.

바람' 시리즈에 장식되는 날개도 사용자와 작가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장식적인 부분이다. 가구는 기능만큼 중요한 것이 빈 공간을 꾸미는 장식적인 요소이므로 사용하는 동안의 편리한 기능적인 조건은 물론이거니와 대할 때마다의 다른 감정을 전해주는 역할도 중요한 것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제작시 해외견학에서 느꼈던 우리 것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이 핀란드 연수 이후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고 그의 작업에 실제로 나타난 것은 태초의 바람8906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 가구 문의 여닫이 방식이다. 한옥의 대문에서 볼 수 있는 빗장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밖으로 보여지는 형태는 언뜻 옛 여인의 쪽진 머리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현대와의 접목이 멋진 조화를 이루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연구일 것이다.

아무튼 최병훈의 이와 같은 작업은 오브제 작업과 가구의 접목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목공예의 또 다른 방향제시가 되었다. 생활용품인 동시에 작가의 의지가 담긴 작품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가구로서 그의 작업은 평가받고 있다.

그가 추구하고 있는 아트 퍼니처의 영역을 보다 넓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티브의 개발은 물론 가구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타 재료와 신소재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대량생산되고 있는 가구가 반복하고 있는 단순한 패턴 디자인에서 벗어난 새로운 장식과 색채로써 새로운 가구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글·유성주 기자